제2강 선험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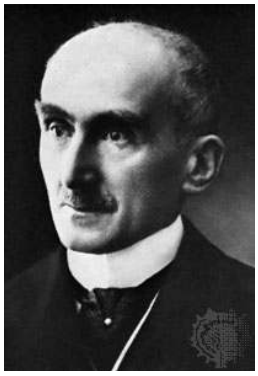
◆선험철학의 이념 1
(1교시)
※학습목표: 선험적 철학의 의미와 칸트식 인식구조를 살펴본다.

▲선험철학의 의미
-감성: 사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감각적인 자료를 얻는 것. 인식의 내용을 이룬다.
 오성: 감성에 의해서 얻어진 감각자료를 개념화하는 것. 인식의 형식(틀)이다.
-감성과 오성의 합작이 이루어져야만 인식이 성립한다.
-선험철학: 칸트는 실제 인식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용을 빼고, 내용이 채워졌던 형식을 보려고 한다. 이렇듯 선험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선험철학이다.

▲인식의 구조
-주체는 감성적인 이미지들의 잡다한 흐름이 아니라, 그를 일정하게 종합하여 연계시켜본다. 즉 우리의 주체성은 그냥 사물들과 순간적으로 접촉하면서 이미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을 통해서 세계를 만난다.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더불어 성립한다. 즉 인식이 되려면 선험적 조건(틀)이 작동해야 한다. 또한 선험적 틀만으로도 안 된다. 선험적 틀에 내용이 채워져야 인식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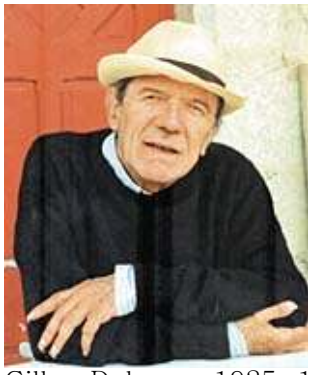
▲인식의 틀에 대한 문제
-칸트는 인식의 틀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틀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칸트가 남겨둔 숙제로 여기서부터 여러 철학자들의 사고가 나온다.
-베르그송: 인식의 틀은 진화론적인 사실이다. 또한 칸트식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인식이 있다. (헤켈, 니체, 프로이트, 들뢰즈 등도 다른 인식의 가능성을 말함)
-들뢰즈: 칸트는 선험적 틀을 가지고 있어서 인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틀이 깨질 수도 있다. 칸트의 철학은 인간주체가 존재를 구성하는 철학이다. 반면 들뢰즈는 존재가 인간주체를 자기의 틀 밖으로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자료



www.artnstudy.com

Henri Bergson, 1859.10.18~1941.1.4, 프랑스 철학자.



Gilles Deleuze, 1925~1995.11.4, 프랑스 철학자.

www.artnstudy.com

◆선험철학의 이념 2
(2교시)
※학습목표: 칸트의 선험철학이 갖는 명제적 의미(선험적 종합명제)와 철학사적 의미를 안다.

▲분석판단(분석명제)와 종합판단(종합명제)
-순수이성비판을 이끄는 중요한 구분 중 하나가 분석판단analytic judgment과 종합판단synthetic judgment의 구분이다.
-분석명제: 술어가 주어 속에 포함되어있는 명제다. 즉 주어를 분석하면 술어가 연역되어 나오는 명제다. 이는 경험이 필요 없는 a priori한 명제다. (Ex.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종합명제: 술어가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명제다. 경험을 해보아야 진위판단을 할 수 있는 a posteriori한 명제다. (Ex.철수는 인사동에 산다.)

▲선험적, 경험적 vs 선천적, 후천적
-a priori와 a posteriori는 선험적과 경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선천적, 후천적: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느냐 나중에 얻었느냐의 구분이다.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은 생물학적 구분이다.
-선험적, 경험적: 경험이 그 인식을 하는 데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구분이다. 그래서 인식론적 구분이다.
-'선험적'은 인식의 종류다. 수학은 경험을 필요하지 않은 선험적 학문이다. 그런데 물리학이나 생물학은 경험이 필요한 경험적 학문이다.

▲라이프니치와의 차이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분은 라이프니치를 의식한 것이다.
-라이프니치: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구분한다. 그리고 모든 참된 명제는 분석명제라고 한다. 그러나 순수논리적인 차원의 분석명제뿐만 아니라 종합명제도 결국 분석명제라고 한다. 이유는 그 서술이 참인 한에서, 종합명제의 술어도 모두 주어 안에 있다고 보는 데 있다. 다만 인간의 분석이 무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안에 술어를 경험하지 않고 끄집어낼 수 없을 뿐이다. 그것은 무한한 분석이 가능한 신만이 가능하다.
-칸트: 모든 참된 명제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나뉜다고 본다. 또한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는 엄연히 다르다. 모든 것을 개념의 분석으로만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공간적으로 다른 것은 개념만으로 모른다. 경험을 해보아야만 알 수 있다.

▲선험적 종합명제
-선험적 종합명제: 선험적인a priori 것은 지각해서 알 수 없고 사유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그런데 종합명제이기도 함으로 무엇인가 실질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선험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며, 종합명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식 또한 준다. (ex. 수학명제, 이론적 물리학)
-칸트의 목적인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을 선험적 종합명제 체계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순수이성비판의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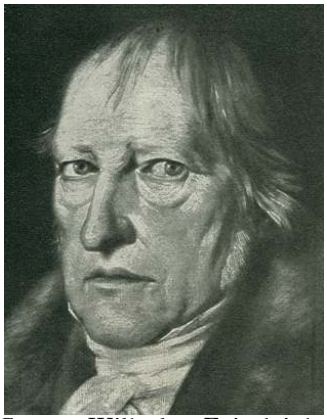
www.artnstudy.com

*참고사항
-러셀의 경우 수학적 명제는 논리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즉 모든 명제는 분석명제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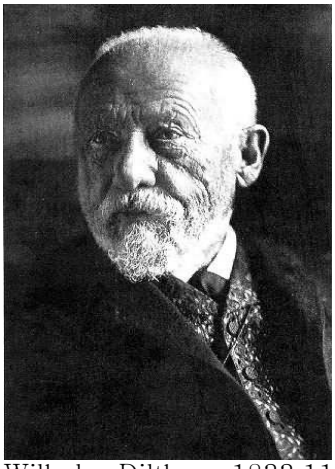
『철학적 문제들』버트런트 러셀, 박영태역, 서광사, 1989

▲경험개념과 서양철학
-영국경험론이나 칸트에게 경험은 지각perception이다.
-헤겔은 영국경험론과 칸트는 역사적 차원이 결여되었다고 말한다.
딜타이는 지각Erfahrung과 체험Erleben을 구분한다. 지각은 피상적이어서 자연과학적 인식에 어울린다. 그러나 인간의 깊은(해석학적인) 체험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베르그송, 하이트헤드, 후설, 제임스, 니시다기타로의 경우 무의식까지 함께 얘기한다. 즉 경험개념이 더 근본적으로 생각된다.
-서양철학은 어떤 면에서 경험개념이 계속 심화되어 온 철학이다.

*참고사항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8.27~1831.11.14 독일의 철학자

www.artnstudy.com


Wilhelm Dilthey, 1833.11.19~1911.10.1 독일의 철학자

www.artnstudy.com